중소기업 기술 자료 '유출'도 처벌

국회 정무위, 기술 유출 차단 담은 하도급 개정안 통과 · 입증 책임 사업자 → 공정위로 변경

앞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여야 간 논의로 기술 유출 여부를 사업자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출 차단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업체의 핵심기술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제3자에게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유용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은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를 유출한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며 "반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유출하는 경우로 문구가 바뀌면 입증 책임이 공정위에 있는데 두 문구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기술 자료 유출이 정당한 사유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사업자가 직접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면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료가 유출 됐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본적인 입증 책임이 공정위에 있다는 전제로 한 이 조항은 오히려 정당한 사유를 변론하고 입증하면 적용 제외될 수 있는 근본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는 제3자에 대한 유출에 대해 신설된 내용이 아니라 기존 하도급법에 있는 직접적인 유용행위를 규제할 때도 이미 사용되는 문구"라며 "공정위가 행정 처분을 할 때 입증 책임이 있고 기술유용에 대한 고시와 집행사례가 구축됐기 때문에 법 집행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정회가 선포되고 여야 간사 간 논의가 진행됐다.

결국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에서 '부당하게'로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로 법안 문구가 변경되면서 공정위가 유출 여부를 직접 입증 해야 한다"며 "향후 조사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수급사업자 기술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카카오택시 유료화 '우선호출 · 즉시배차 도입'

수수료 '콜비'보다 비쌀듯… '최종 협의 중'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가 무료로 운영되던 일반 호출 외에 수수료를 내고 배차를 진행하는 유료서비스를 시작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우선호출'과 '즉시배차'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호출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에 우선적으로 호출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즉시 배차는 기사의 호출 거부없이 인근의 비어 있는 택시를 즉시 배차해준다.

정주현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사용자들이 더 많은 호출 옵션을 달라는 바람이 있었다"며 "기존 일반 호출을 통해 우선요청과 즉시 배차를 하되 플랫폼 사용료를 부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콜비'와는 다른 이용자들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플랫폼 사용료'라고 개념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플랫폼 사용료이기 때문에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종 가격은 논의중이지만 즉시 배차의 경우 기존 콜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무료로 운영되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 포인트 제도를 선보였다. 포인트는 출금이 가능한 형태로, 유료호출 서비스 수익의 일부를 가져와 운영하게 된다.

포인트는 일반 호출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다. 택시 기사가 지나치게 유료서비스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대비책이라는 것이다.

유료호출 서비스 도입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오랜 고민끝에 나오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택시 호출은 2.5배 늘어난데 반해 활동 기사 수는 1.4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 대표는 "단적인 예로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카카오T 택시 호출은 약 23만건에 달한 반면, 당시 배차 가능한 택시는 약 2만6000대 수준"이라며 "호출의 80% 이상이 공급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

특히 눈비와 같은 기상 변화, 대형 공연이나 이벤트 등으로 인해 특이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와 공급 격차는 더욱 심화된다"고 부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택시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출퇴근, 심야 시간이나 도심 지역에서 발생하는 택시 승차난의 근본적 원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2013년 이후 운행 택시 수가 줄어들면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지만 이같은 방법은 수요와 공급 격차라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유료호출 서비스를 도입해 수요와 공급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풀 서비스로 택시 수요를 보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카카오택시에서 연결이 이루어 지지 않은 호출을 카풀로 연결해줄 경우, 택시 부족분의 상당 부분을 카풀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카풀 서비스가 불법 논란에 휘말렸던 만큼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택시업계와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글로벌진출 전략도 공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본의 '재팬 택시'와의 협업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한일 양국의 이용자에게 국경을 초월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이용자는 한국에서 재팬택시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이용자는 일본에서 카카오 T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투자한 '이지식스코리아'를 통해 국내 이용자가 홍콩, 대만, 동남아 지역에 방문했을 때 현지 이동수단을 연결해주는 사업도 연내 시작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하루 약 2시간에 달하는 이동 시간을 더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실현하는것이 목표"라며 "연결, 공유, 다양성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의 혁신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www.jjmaeil.com

지난해 열린 행복버스

'농업인 행복버스' 첫 운행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중앙회 발대식

농촌 지역을 돌며 의료·복지서비스를 펼치는 '농업인 행복버스'가 내일(14일) 올해 첫 운행을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14일 전북 장수군 장계국민체육센터에서 '2018년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인 행복버스는 농촌 지역을 직접 찾아가 건강검진, 장수사진 촬영, 법률상담, 농기계 무상점검, 문화예술 공연 등의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농협이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운행해왔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행복버스의 수혜자는 그간 302개 지역 2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전북에서 첫 시동을 건 농업인 행복버스는 한 해동안 전국 86개 지역을 방문해 농촌 어르신 6만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농촌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농촌 복지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부, 15일 3000억원 규모 50년물 국고채 발행

정부가 오는 15일 3000억원 규모의 5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국채시장 발전 포럼 및 2017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시상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50년물 국고채를 발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발행 계획을 세우면서 3년 연속 50년물 국고채를 발행한다.

김 차관은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시장참여자들의 포트폴리아 다변화를 지원하고 재정 자금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5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면서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정부의 국가채무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향후 50년 만기 국고채 바행규모, 시기 등은 시장참가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결정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고채 인수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밝혔다.

/뉴시스

이스타항공, 온가족 휴양 이벤트 '휴양배틀' 특가 오픈

이스타항공이 13일 오후 2시부터 19일까지 일주일 간 온가족 휴양 이벤트 '휴양배틀' 특가를 오픈한다.

이번 '휴양배틀' 이벤트는 3월14일부터 4월13일까지 탑승 가능한 일본 오키나와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노선 항공권을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

아시아의 하와이로 불리는 오키나와와 세계 3대 석양을 자랑하는 코타키나발루는 대표적인 가족단위 휴양지이다.

특가항공권은 편도총액운임 기준 최저가 ▲인천-오키나와 7만7900원 ▲인천-코타키나발루 11만9900원부터 구매가능하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이벤트가 시작하는 13일 단 하루 동안 '휴양배틀'을 통해 노선을 예약하시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1일 무료이용권을 증정한다.

참여방법은 '휴양배틀' 특가를 통해 예약한 후, '와이파이 쿠폰 신청하기'를 통해 자동으로 쿠폰번호가 발생하면, 와이파이 예약 사이트에 접속하여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뉴시스